

전시컨벤션 시설의 공간구성적 특성에 관한 연구

- 기능배분과 면적구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Space Composition for Exhibition and Convention Facilities

- Focused on the Function Distribution and Area Composition -

Author 박태성 Park, Tae-Sung / 정희원, (주)이가중합건축사사무소 이사, 공학박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function and scale on aspect of construction planning with examples of exhibition and convention facilities constructed recently in domestic and foreign area. Also, it was to provide the result for basic data for construction planning and architecture of similar facilities constructed later. The study methodes, but they had characteristics to use the space with compound purpose for exhibition, conference, etc through installing multi-purpose hall. Finally, for effective construction planning of exhibition and convention facilities, it was required to decrease the ratio of common area gradually and derive rationalization of whole space composition by deriving complexity of function rather than planning of single purpose of each facility for exhibition and conference function. wa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construction planning for composition and scale of exhibition, conference, public use, support, maintenance functions, etc and placement composition of unit rooms by each floor on the basis of internal area of exhibition and convention facility in Korea and Japan. As the result of analyzing 10 examples(K1~J5), the placement of auditorium and multi-purpose hall was affected according to location of exhibition room and conference room in the composition of unit rooms by each floor and the installment ratio of support facility in Korean examples was higher than in Japanese examples. In case of facility scale, the Japanese examples were overall small in the whole scale relatively to Korean examp

Keywords 전시컨벤션시설, 기능배분, 규모
Exhibition and Convention Facilities, Function Distribution, Area Siz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국제적인 회의와 산업전시의 증가로 대규모 방문객들의 수요가 늘자 국내 대도시마다 지역 활성화 목적으로 전시컨벤션 시설의 규모와 수를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MICE(Meeting, Incentive, Convention & Exhibitions·Event) 산업이라고 불리는 전시컨벤션은 개최수(국내에서 연간 개최된 국제규모의 MICE)가 2001년 294건에서 2010년 1,070건으로 약 4배 정도 크게 성장하였다.

이에 정부는 1996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2008년에는 전시산업발전법을 제정하여 전시시설의 건립 등 회의와 전시산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2009년 1월 MICE산업을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하고 전국 8곳을 국제회의도시로 지

정하여 이 분야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해오고 있다.

이와 같이 전시컨벤션 시설은 "국가산업적인 측면에서 기반시설인 동시에 무공해 고부가가치산업"이라는 기대감과 전망으로 공공제로 인식되어 회의장, 전시장의 확대를 통한 대형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제 및 국내 시설간의 시설면적 확보를 위한 경쟁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중·소 전시컨벤션 시설의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부족한 시설면적으로는 대규모 전시회나 국제회의 유치 경쟁이 어려워졌고, 정부가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전시주최사업자들의 선호도에 맞도록 전시규모의 기본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소요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증축이 필요하다고 관계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전문 전시컨벤션 시설은 전국에 12곳이 있으며 이 중 2곳을 제외한 10곳은 최근 약 10년 내에 조성되었으며 이들 10곳 중 5곳은 증축을 하였거나

<표 1> 정부지원 전시규모의 기본요건(지식경제부, 2012)

구분	총 전시면적	참가업체수	비고
유망전시회	5,000㎡ 이상	100개사 이상	전시산업발전법에 의한 전시시설에서 개최 필요
합동·통합전시회	20,000㎡ 이상	-	
Global Top전시회	30,000㎡ 이상	400개사 이상	

건설 또는 예정 중에 있어서 규모의 확장 수요가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는 광역시 규모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보다 규모가 작은 도시들도 시설 유치 및 조성을 위한 관련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조만간 시설 공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국내외적인 상황과 조성 수요에 비하여 전시컨벤션 시설에 관련된 계획 분야의 학문적 연구는 아직 미비하며, 실무적으로도 최근의 건축적 특성을 반영하여 분석한 연구 결과가 부족한 상황이다.

전시컨벤션 시설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주로 산업적 측면인 전략, 관광, 관리운영 분야에서 주로 연구되어왔고 건축계획분야에 대한 연구는 극히 드물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관련 시설의 조성이 적었던 관계로 국내보다는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가 중심적이었다.

최근 국내 전시컨벤션 시설의 복합화 단지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개발방식에 대한 연구로서 시설 내부에 관한 공간과 규모를 다루는 건축계획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못하였다.

<표 2> 선행연구의 주요내용

연구자	연구 제목	주요 내용	발표연도
고영훈 외 2인	컨벤션센터의 복합화 계획특성에 관한 연구	해외 컨벤션센터의 복합화경향고찰	2000년
김성동 외 1인	컨벤션계획에 대한 연구	중국 컨벤션센터의 유형별 분석	2007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MICE시설과 인접지역 복합화 추진방안	컨벤션 시설의복합화에 따른 개발방식 연구	2009년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앞서 기술한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로 조성되었거나 조성중인 국내외 전시컨벤션 시설의 사례를 대상으로 건축계획적인 측면에서 공간구조에 대한 건축 기능과 규모를 살펴보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향후 조성될 관련 시설의 계획 및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것에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국내의 전문 전시컨벤션 시설의 역사¹⁾는 1988년에 개관한 한국종합무역센터(현 코엑스)가 조성된 해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시기는

1) 국내 회의의 시초는 1915년 4월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全 朝鮮 記者大會'라고 할 수 있으며(임제일, 1996), 이후 1985년의 IBRD, IMF 총회, 1996년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유치를 하면서 시설 확장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제3차 ASEM 서울대회 개최를 대비하여 2000년 5월 코엑스가 확장되면서 국내 컨벤션 시설의 조성 및 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서승진, 2007)

국제회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이기 때문에 국내외 비교하면 역사가 짧고 숫자적으로도 시설이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 대상의 범위는 가급적 최신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하여 2000년 이후 최근 증축이 완료되었거나 조성중인 사례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부족한 국내 사례 및 자료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가깝고 우리나라보다 일찍 전문 전시컨벤션 시설을 조성하기 시작한 일본의 사례를 추가적으로 검토 하였다. 일본 사례의 경우, 일본 정부로부터 국제회의관광도시²⁾로 지정된 지역들을 중심으로 2000년을 전후하여 지어진 비교적 최신 사례를 조사대상 범위로 하였다. 또한 최근 MICE복합화 추세로 인하여 전시컨벤션 시설 주변이나 내부에 숙박 및 쇼핑 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는 경향이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많이 활성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조사 범위는 핵심이 되는 전시장, 회의장과 이에 부속된 내부 시설로 한정하기로 한다. 연구 방법은 먼저 전시기능, 회의기능, 공용기능, 관리기능 등 내부 공간의 주요 기능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사례의 규모별 분류를 통하여 전시 컨벤션 시설 조성에 있어서의 계획적인 특성을 검토하여 연구 결과로 도출하도록 한다.

<표 3> 연구 사례조사 대상시설 개요

시설별	개관년도	지역	층수	연면적 (㎡)	부지면적 (㎡)	비고
K1	2011	고양	지하1층 지상15층	222,368	200,566	
K2	2011	대구	지하2층 지상5층	54,924	22,152	
K3	2012	부산	지하2층 지상3층	121,063	160,987	
K4	2013	광주	지하1층 지상3층	17,175	53,301	예정
K5	2016	인천	지하1층 지상4층	61,371	24,361	예정
J1	1998	도토리현	지하1층 지상6층	18,595	17,661	
J2	1999	구마모토현	지상2층	20,280	122,751	
J3	2003	후쿠오카시	지상5층	22,185	10,251	
J4	2003	니가타현	지상4층	34,275	17,661	
J5	2003	삿포로시	지하1층 지상3층	20,310	40,018	

조사 방법은 국내외 문헌조사와 함께 국내의 경우 시설운영 담당자의 인터뷰조사를 부분적으로 실시하여 분

2) 일본은 1994년 국제회의 등의 촉진 및 개최의 원활화 등에 의한 국제관광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역별로 대규모 국제회의시설 건립 및 대규모 국제회의의 유치 등을 통하여 컨벤션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국제회의시설, 숙박시설 등의 하드웨어 측면과 컨벤션뷰로(Convention Bureau : 컨벤션전담조직) 운영 등의 소프트웨어면에서의 체계가 정비되어, 컨벤션 진흥에 적응한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총 52개 도시가 지정되어 있다(일본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석과정의 미비점을 최대한 보완하고자 하였다. 조사 사례는 앞의 <표 3>과 같이 한국과 일본의 시설을 각각 5곳씩 선정하였고, 이 중 조성이 진행 중에 있는 K4와 K5의 국내 사례는 기본계획 보고서 및 설계공모지침서를 참고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향후 실제 면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3. 용어의 정의

컨벤션에 대한 단어적 해석은 개인 및 단체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³⁾ 회의 및 전시를 일컫는 용어는 집회, 총회, 대회, 강연, 이벤트를 중심으로 하는 컨벤션(Convention)과 기업의 산업전시회나 국가적 공식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멧세(Messe)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컨벤션의 정의에 대하여 김금향(2006)은 국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국제회의를 포함한 컨퍼런스, 학회, 대회, 세미나, 기업미팅, 전시회, 박람회, 이벤트 등이 정기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라 했고, 서승진(2007)은 모든 회의와 이에 수반되는 전시 및 행사를 매개체로 하여 사람과 물건의 만남을 창출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국제회의, 보상여행 및 관광회의, 전시박람회, 스포츠 행사, 기업회의 등의 기능을 포함하는 것을 컨벤션이라 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경우 컨벤션은 국제회의를 지칭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시설명에서도 멧세보다는 컨벤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회의기능을 주로 의미하는 컨벤션이란 의미에 붙여서 전시기능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므로 전시컨벤션이라 통칭하여 불리우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전시컨벤션 시설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며 각종 전시회, 회의, 이벤트 및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공간⁴⁾을 조성하여 제공하는 시설⁵⁾이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시설 기능의 분류

먼저 사례분석에 앞서 문헌에 의한 이론적 검토와 예

3) 컨벤션에 대한 기준은 UIA(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에서 정한 기준이 통상 국제적 정의로 이용되고 있으며, 국내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기준과 한국관광공사에서 사용하는 기준이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컨벤션지원정책 개선방안, 2011, p.9)

4) 복합적인 공간이란 규모적인 의미에서 목적에 따라 대중소로 나눌 수 있으며 기능적인 의미에서 주 기능인 전시 및 회의기능 외에 숙박, 쇼핑, 금융,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등의 기능을 부가적으로 포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5) 한국전시컨벤션협회에서는 컨벤션센터를 모인, 회의 및 전시 등을 개최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용시설이라고 용어집에서 정의하고 있다.

비 사례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시컨벤션 시설의 주요 기능을 구분하였다. <표 4>와 같이 영역별로 크게 구분하면 전시와 회의가 행하여지는 집회영역, 공용으로 이용하는 공동영역, 행사를 지원하는 지원영역, 행사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한 관리영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으며, 전시기능으로 분류된 다목적홀 또는 이벤트홀은 회의기능에 분류되기도 하지만 예비 사례조사에서는 전시기능에 근접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표 4> 영역별 세부용도 분류⁶⁾

영역별	기능별	단위시설별	
집회영역	전시기능	주시설	전시장, 다목적홀(이벤트홀)
		부시설	주차차사무실, 전시업체사무실, 수납 및 기자재실, 창고, 하역실, 하역창고 등
	회의기능	주시설	대/중/소 회의장, 오디오리움
		부시설	통역실, 대기실, 준비실, 분장실, 연습실, 영사실, 음향 및 조명조정실
공동영역	공용기능	로비, 홀, 라운지, 화장실, 계단실, EV실	
지원영역	편의기능	수유실, 물품보관실, 정보센터, 귀빈실, 연회예약실, 안내실, 의무실, 비즈니스라운지, 프레스센터, 휴게실, 주방(Catering), 탕비실	
	판매기능	식당, 카페, 매점, 문구점 등	
	서비스기능	주차장, 은행, 우체국, 택배실, 임대사무실 등	
관리영역	운영기능	관리사무실, 회의실, 응접실, 방재센터(중앙감시실), 숙직실, 홀매니저사무실, 창고	
	설비기능	공조실, 기계실, 전기실, 펌프실, 우수처리실, 쓰레기집하장	

또한 앞서 서술한 MICE의 내용에 따라 이용별로 분류를 하면 <표 5>와 같다. 회의(M)와 컨벤션(C)은 대규모일 경우 전시장과 회의장을 모두 사용하며 회의장에 각 분과별 회장을 설치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시·이벤트(E)의 경우도 전시뿐만 아니라 행사 내용에 따라서 회의, 강연, 세미나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므로 이에 따라 각 분과가 회의장에 설치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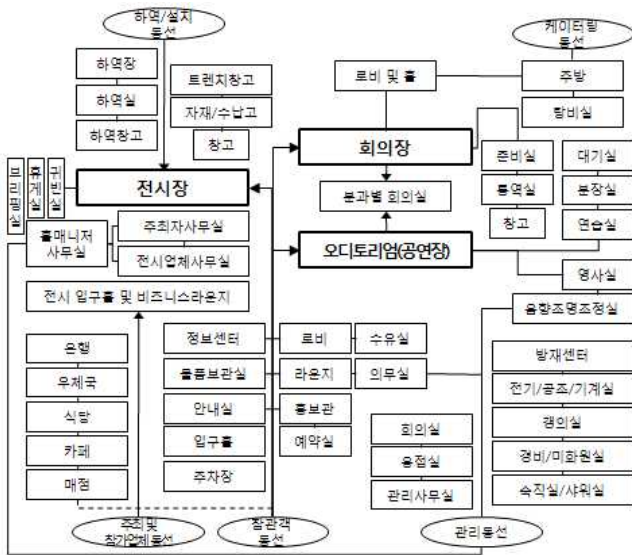
<표 5> MICE에 따른 이용별 분류⁷⁾

	회의(M)	컨벤션(C)	전시·이벤트(E)	
			전시	이벤트
전시장	회의	국제회의	전문전시	이벤트
	연수	학회회의	종합전시	콘서트
	세미나	대회·총회	박람회	商談會
회의장	분과회장	분과회장	분과회장	
	분과회	분과회	분과회	
	분과회	분과회	분과회	
	준비실	준비실	준비실	준비실

*MICE(Meeting, Incentive, Convention & Exhibitions-Event)

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컨벤션센터건립방안, 1994. pp.70-72, 재구성
7) 熊本市, 熊本市コンベンションシティ基本構想, 2011, p.21, 재구성

또한 이용자별로 나누면 참관객, 참가업체, 전시 및 회의 주최자, 서비스공급자, 관리운영자로 나눌 수가 있으며, 각 이용자별 동선과 전시장 및 회의장에 따른 단위공간을 동선에 따라 배치하면 <그림 1>과 같이 단위실별로 상호 연관성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내부에 많이 조성되고 있는 오디오리엄의 경우, 회의와 공연기능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회의장으로 사용될 때는



<그림 1> 이용자별 동선 및 단위공간별 배치⁸⁾

분과별 회의실, 준비실, 통역실 등이 주로 이용되며 공연이 열릴 때는 대기, 분장, 연습실 등 부속실의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케이터링(Catering) 서비스는 주로 회의 및 연회가 열릴 경우 이용하므로 관련 단위실들이 회의장 주변에 배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회의장, 로비 및 홀 등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관리 동선은 세부적으로 행사에 따른 운영관리와 공조, 기계, 전기 설비 등의 유지를 위한 시설관리 동선으로 양분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위실들이 건물 내에서 수직 또는 수평적으로 상호 분리되어 배치된다.

2.2. 시설면적에 따른 규모의 분류

미술관이나 박물관과 같은 문화전시시설에 대한 규모를 분류한 자료는 비교적 많이 있으나, 전시컨벤션 시설처럼 산업전시시설의 규모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 및 문헌은 아직 부족한 편이다. 전시컨벤션 관련 법규⁹⁾에서도 국제회의

8) 제해성, 컨벤션센터와 무역전시관 건축, 구미서관, 2001, p15, 재구성
9)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에서는 국제회의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대하여 전문회의 시설은 2천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과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10실 이상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시시설은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옥내와 옥외 시설을 모두 포함하여 2천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과 30명 이상 수용가능한 중소회의실 5실 이상을 갖춘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 시설 규모에 대해서만 면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각 규모별로 요구되는 소요면적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부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일부 기준들을 살펴보고 회의시설과 전시시설의 각 규모별 소요면적을 검토하도록 한다.

회의시설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설 기준이 아닌 참가자 규모에 따라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초대규모로 구분하고 있다. Castex, J.(2001)는 전시가 수반되는 국제회의 참가자의 규모에 따라서 소규모 15~150명, 중규모 150~500명, 대규모 500~1,500명, 초대규모 1,500~3,000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MICE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관광청(2009)은 이와 유사하게 구분하고 있으나 소규모 200명 이내, 중규모, 200~1,000명, 대규모 1,000명~3,000명, 초대규모를 3,000명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어 Castex보다 규모를 크게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서 전자와 후자의 최대값의 평균값을 1인당 소요면적¹⁰⁾으로 환산하면 대략적인 규모별 면적을 추정할 수 있는데, 소규모 회의시설은 350㎡이내, 중규모 350~1,500㎡, 대규모는 1,500~4,500㎡, 초대규모는 4,500㎡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6> 회의시설의 규모별 소요면적

구분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초대규모
Castex	150명 이내	150~500명	500~1,500명	1,500~3,000명
일본관광청	200명 이내	200~1,000명	1,000~3,000명	3,000명 ~
평균값	175명 이내	175~750명	750~2,250명	2,250~3,000명
환산 면적	350㎡ 이내	350~1,500㎡	1,500~4,500㎡	4,500㎡ ~

한편, 전시시설 규모의 경우 이규환(2008)은 소규모 전시면적을 8,000㎡ 미만, 중규모는 8,000㎡~15,000㎡ 미만, 대규모는 15,000㎡~30,000㎡ 미만, 초대규모는 30,000㎡ 이상으로 분류하고 있다.¹¹⁾ 이 기준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개최된 과거 전시 행사의 실적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약 90% 정도의 행사가 전시면적 15,000㎡ 이하의 중·소규모급 시설에서 개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전시면적별 개최비율(2010년)¹²⁾

전시면적	평균면적	개최건수	비율(%)	누적율(%)
0~5,000㎡	2,500㎡	199	42.1	42.1
5,000~10,000㎡	7,500㎡	142	30.1	72.2
10,000~15,000㎡	12,500㎡	82	17.3	89.5
15,000~20,000㎡	17,500㎡	25	5.3	94.8
20,000~25,000㎡	22,500㎡	9	1.9	96.7
25,000~30,000㎡	27,500㎡	8	1.7	98.4
30,000~35,000㎡	32,500㎡	4	0.8	99.2
35,000~40,000㎡	37,500㎡	1	0.2	99.4
40,000㎡ 이상	-	3	0.6	100
합계		473	100	

10) 이광노 외, 건축계획, 문운당, 1993, p.490에서 제시한 1인당 필요연면적 2㎡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였다.

11) 이규환,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 Vol.474, 2008, p.14

12) 한국전시산업진흥회, 2010년 국내전시회 개최리스트(장소별), 2011

또한 최근 5개년간 국내에서 개최된 각종 전시회의 총 전시면적의 평균은 약 9,200㎡(총전시면적에 대한 순전시면적은 평균 48.1%)로 나타나서, 국내에서 개최되는 일반적인 전시 규모는 앞서 분류한 전시면적 8,000㎡~15,000㎡ 미만 전시시설의 면적 범위 내에 해당하는 중 규모급인 것도 알 수 있다.

<표 8> 전시회별 평균전시면적(2007~2011년)¹³⁾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평균
총전시면적(A)	9,402	9,728	8,277	9,350	9,246	9,200
순전시면적(B)	4,593	4,106	3,540	5,956	3,950	4,429
비율(B/A)%	48.9%	42.2%	42.8%	63.7%	42.7%	48.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에 정리된 규모별 면적 범위를 활용하여 사례분석에 적용하기로 한다.

3. 사례분석

사례 분석은 앞서 <표 3>에서 선정한 한국과 일본의 사례 10곳(K1~J5)의 시설을 중심으로 하며 전체적으로는 층별 단위실의 배치구성과 기능별 면적구성을 분석하고, 세부적으로는 가장 핵심적인 부문인 집회영역의 전시기능과 회의기능 부문에 대한 계획적 특성 분석을 하도록 한다.

3.1. 층별 단위실의 구성

조사 대상 시설의 층수는 지하2층에서 지상15층까지 각각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나, 주요 공간인 전시장과 회의장은 지상 1층에서 3층 사이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이 3개 층 범위 내에서 대부분의 전시컨벤션 기능은 완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공간의 특성상 주요 실의 저층부 배치를 통하여 많은 이용객들이 출입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물동량이 빈번한 하역기능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물자의 동선이 짧은 저층부에 집중 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시장을 지하층에 배치하거나 K3과 J3의 사례처럼 2층 이상에 배치한 사례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하역동선도 전시장이 위치한 동일층으로 유도시키고 있었다. 층별 주요기능을 분석하면 1층은 전시, 관리, 지원기능, 2~3층은 회의기능, 지하는 주차, 설비기능 관련 단위실들을 주로 배치하고 있다.¹⁴⁾

회의실은 모든 사례가 중회의실이 가지고 있으며 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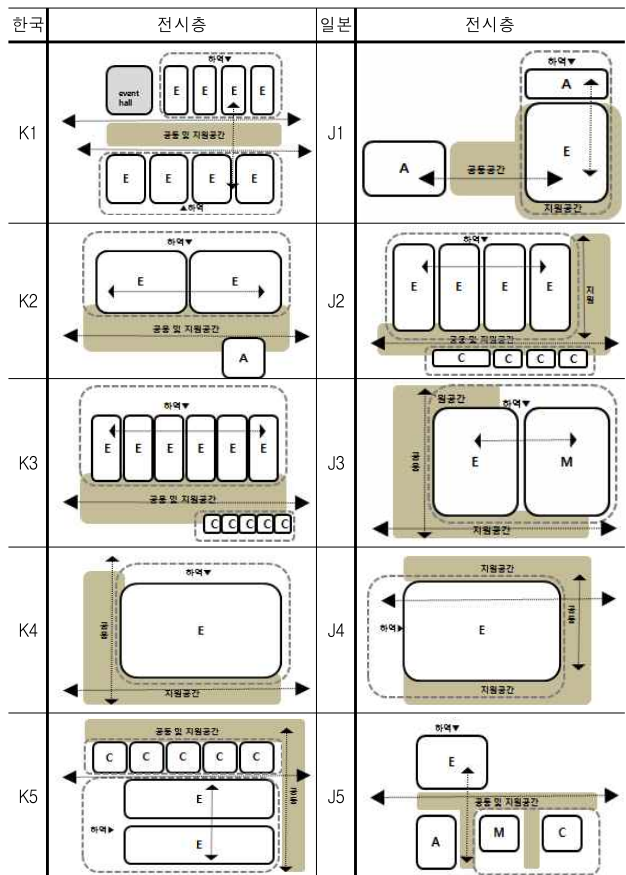
에 대회의실 또는 소회의실이 결합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K3의 사례를 제외하고 회의실은 모두 지상 2층 이상에 배치되었으며, 전시동선과의 혼잡을 막기 위하여 전시실과 동일층에 있지 않도록 하고 있다.

<표 9> 주요 실들의 층별 배치 형태 비교

	전시 + 회의 + 오디오리엄	전시 + 다목적홀 + 회의
3층	회의, 오디오리엄	회의
2층	회의, 오디오리엄	회의, 다목적홀
1층	전시	전시, 다목적홀, 주차
지하층	주차	

대부분 대·중·소규모의 각 회의실은 동일층에 위치하여 상호 연계 및 통합성을 가지도록 계획되었으나, J1과 같이 대회의실과 중소회의실이 별도의 층으로 분리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K1, K3, J1과 같이 동일 형식의 회의실이 층별로 반복되는 형식도 있으나 반복은 2개 층 정도로 나타났다.

<표 10> 사례별 배치유형 다이어그램



* M= Exhibition Hall, C= Convention Hall, A=Auditorium, M= Multi-Purpose Hall

13) 한국전시산업진흥회, 2011국내전시산업 통계 리뷰, 2012
 14) 일본 사례의 경우 5곳 모두 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하지 않고 옥외에 주차장을 설치하였다. 이것은 지진의 영향을 차치하고 지하층 설치로 인한 공사비 증가 방지와 함께 대중교통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철역에 근접시켜 조성하여 접근성을 높였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지하층까지 주차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오디오리엄의 경우 공연 용도뿐만 아니라 강연, 회의 용도로 빈번하게 사용하며 분과별 회의실과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의실이 있는 동일층 또는 직

하부층에 주로 배치를 하고 있다. 또한 일본 사례에서 많이 보이는 다목적 홀은 복합용도15)를 가지고 있으며 오디오리엄과 달리 전문음향설비가 없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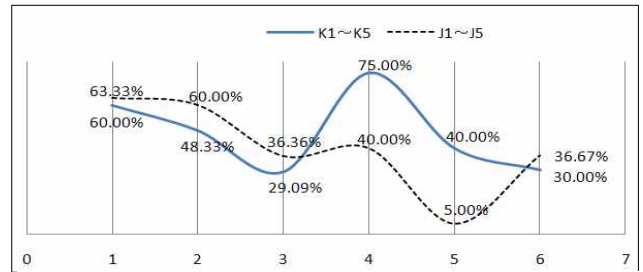
<표 11> 기능별 단위실의 설치 빈도

기능별 단위실	K					J					
	1	2	3	4	5	1	2	3	4	5	
전시기능	전시장	○	○	○	○	○	○	○	○	○	○
	주최자사무실	○	○	○	○	○	○	○	○	○	○
	전시업체사무실	○					○	○			
	트렌치고	○		○							
	수납고/기자재실						○	○			
	창고(전시/회의)	○	○	○	○	○	○	○	○	○	○
회의기능	하역실	○	○	○	○	○	○	○	○	○	○
	하역창고	○	○			○			○	○	○
	회의장(大)	○	○				○	○	○		
	회의장(中)	○	○	○	○	○	○	○	○	○	○
	회의장(小)		○		○		○	○	○	○	○
	다목적홀	○			○		○	○	○	○	○
	오디오리엄		○	○	○	○			○	○	○
	통역실	○	○	○	○						○
	대기실		○		○						○
	준비실			○					○	○	
	분장실	○									
	연습실		○				○				
	영사실				○		○	○			○
	음향조정조절실	○	○	○	○	○			○	○	○
편의기능	수유실	○	○				○	○			○
	물품보관실		○		○		○	○			○
	정보센터						○				
	귀빈실	○	○	○							
	연회예약실	○									
	안내실	○	○				○		○	○	○
	의무실	○							○	○	
	비즈니스라운지	○	○								
	프레스센터	○									
	휴게실			○	○			○			
공용기능	로비	○	○	○	○	○	○	○	○	○	○
	홀	○	○	○	○	○	○	○	○	○	○
	참관객라운지	○			○		○				
판매기능	식당	○	○	○	○	○		○		○	
	카페	○			○		○				
	매점	○	○	○	○	○					
서비스기능	주차장(옥내)	○	○	○	○	○					
	주차장(옥외)	○	○	○	○	○	○	○	○	○	○
	은행										
	임대사무실	○					○				
관리기능	관리사무실	○	○	○	○	○	○	○	○	○	○
	회의실							○			
	응접실										
	홍보관	○		○							
	방재센터	○					○	○	○	○	
설비기능	홀매니저사무실	○					○	○	○	○	
	숙직실/샤워실			○							
	기계실	○	○	○	○	○	○	○	○	○	○
	공조실	○			○			○			
	전기실	○	○	○	○	○	○	○	○	○	○
	우수처리실			○				○			
쓰레기처리실	○		○				○				

15) 다목적홀 형식은 고정석과 전시공간이 결합된 연결형, 가동석과 전시공간이 결합된 일체형의 2가지 형식이 있으며, 전시 또는 회의 기능 중 주로 이용하려는 용도에 따라 형식이 달리 설치된다.

다목적 홀은 전시, 회의, 연회 등의 복합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시장과 회의장의 중간층 또는 규모가 큰 경우에 지상층에 배치하는 경향이 있으며, 오디오리엄을 계획할 경우 다목적홀도 동시에 계획(J1, J3, J4, J5)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능별 각 단위실의 설치 비율을 살펴보면 <그림 2>에서처럼 전시, 관리(운영), 편의기능과 관련된 단위실의 도입 비율은 격차가 10% 미만으로 한·일간에 비교적 큰 차이가 없었다. 회의기능과 연관된 다분화된 회의장, 준비실 등 단위실의 설치 비율은 일본 사례가 60%로 한국의 사례 48% 보다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당, 카페, 매점 등의 판매시설은 한국의 설치 비율이 75%로 일본 사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 운영의 경영성과 증대를 위하여 수익시설 입점 비율을 점차 높이고 있는 국내적인 특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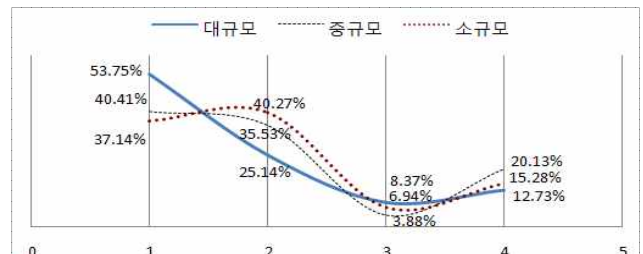


* 1 전시기능 2 회의기능 3 편의기능 4 판매기능 5 서비스 6 관리(운영)기능

<그림 2> 기능별 단위실의 설치비율

3.2. 기능별 면적 구성

앞 2장에서 분류한 방법으로 전시면적을 기준으로 규모별로 구분하면 대규모(K1, K3, J2), 중규모(K2, K5, J4), 소규모(K4, J1, J3, J5)로 분류할 수 있고, 각 영역을 연면적 대비 점유면적 비율로 비교16)하면, 집회영역은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비례하여 면적이 상승하였으나, 공동영역의 경우 면적의 비율은 반비례하여 소규모일수록 공용부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집회영역 2 공동영역 3 지원영역 4 관리영역

<그림 3> 각 규모별 영역의 점유비율

16) 일본 사례의 경우 지하주차장이 없으므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한국 사례에서도 주차장 및 관련 공간의 면적을 제외하고 산정

<표 12> 영역 및 기능별 면적 비율

시설별	집회영역						공동영역		지원영역				관리영역			
	전시(㎡)	비율	회의(㎡)	비율	기타(㎡)	비율	공용(㎡)	비율	편의(㎡)	비율	판매(㎡)	비율	운영(㎡)	비율	설비(㎡)	비율
K1	54,508	43.8%	5,510	4.4%	3,198	2.6%	31,620	25.4%	9,612	7.7%	8,256	6.6%	2,984	2.4%	8,856	7.1%
K2	10,005	29.5%	3,284	9.7%	3,755	11.1%	8,517	25.1%	236	1.6%	359	1.1%	192	0.6%	7,312	21.5%
K3	19,872	41.5%	6,278	13.1%	3,036	6.3%	11,539	24.1%	878	1.8%	680	1.4%	739	1.5%	4,901	10.2%
K4	2,740	18.1%	2,520	16.7%	1,420	9.4%	5,630	37.3%	150	1.0%	1,520	10.1%	170	1.1%	950	6.3%
K5	8,503	18.3%	4,630	10.0%	160	0.3%	18,154	39.1%	799	1.7%	2,479	5.3%	719	1.5%	10,967	23.6%
J1	1,879	10.1%	1,830	9.8%	2,989	16.1%	8,240	44.3%	677	3.6%	368	2.0%	682	3.7%	1,930	10.4%
J2	8,644	42.6%	354	1.7%	1,061	5.2%	5,265	26.0%	864	4.3%	662	3.3%	316	1.6%	3,114	15.4%
J3	1,320	5.9%	3,444	15.5%	2,504	11.3%	8,897	40.1%	579	2.6%	393	1.8%	904	4.1%	3,930	17.7%
J4	7,800	22.8%	3,199	9.3%	3,529	10.3%	14,584	42.5%	497	1.5%	168	0.5%	176	0.5%	4,322	12.6%
J5	2,607	12.8%	2,500	12.3%	2,114	10.4%	7,996	39.4%	875	4.3%	484	2.4%	656	3.2%	2,973	14.6%

이는 주요 시설인 전시, 회의장과 연속되어 있는 로비, 홀 등의 면적들이 중소규모 시설에서도 공간적 여유와 이용의 편의성을 위하여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주차면적을 제외한 지원영역의 면적은 3.8~8.3%의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관리영역의 비율은 중규모-소규모-대규모 순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냈다.

3.3. 전시장의 단위공간 분석

일반적으로 전시장의 전시공간은 대규모 행사가 아닌 경우 일정 면적을 분할하여 임대를 하고 있다. 분할 단위는 각 전시장마다 다르며 임대비용과 관계가 깊으므로 효율적인 임대를 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다. 분석은 자료수집이 가능한 7개소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최대, 최소 단위 및 면적, 부스 설치 개수와 평균 천정고를 조사 분석하였다.

<표 13> 사례별 전시장의 분할단위 및 면적

사례	분할형태	최대 단위 (m)	최대 면적	최소 단위 (m)	최소 면적	부스 설치 개수	천정 (CH)
K1		126X90	11,340㎡	63X90	5,670㎡	510개	12m
		132X99	13,068㎡	66X99	6,534㎡	550개	15m
K2		72X71	5,171㎡	64X18	1,152㎡	225개	15m
		69X71	4,834㎡	64X27	1,728㎡	210개	15m
K3		207X48	9,936㎡	31X48	1,488㎡	452개	12m
J2		150X54	8,100㎡	39X54	2,106㎡	368개	15m
J3		39X34	1,326㎡	19X13	252㎡	60개	9m
J4		130X60	7,800㎡	45X60	2,700㎡	354개	22m
J5		64X41	2,607㎡	20X41	846㎡	118개	12m

분할 형태는 장방형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2분할에서 6분할까지 가능하도록 하였고, 특히 K3 사례는 공간을 6분할하여 다용도에 대응할 수 있는 레이아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분할면적의 단위는 최소 19X13(252㎡)

에서 최대 66X99(6,534㎡)의 규모로 분할하고 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규모의 경우 2~6분할로 다양하게 면적을 분할하고 있고, 중·소규모의 경우 각각 2분할과 3~4분할로 분할하여 변형할 수 있는 레이아웃의 가용성이 적었다. 분할단위가 작을수록 소규모 전시를 유치하기에 적합하지만, 대규모 시설의 분할 단위면적의 최소면적 평균이 3,950㎡인 것에 반하여 중규모는 1,860㎡로 두 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 이는 <표 7>의 자료에서처럼 국내의 경우 소규모 전시행사의 평균면적이 2,500㎡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최소 단위면적을 계획할 필요성이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가 아니면 대규모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전시장의 설치 조립되는 부스는 기본형 부스(3X3X2.4m)를 기준으로 할 때 최대 전시면적의 약 30~50%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시장의 천정고는 최소 9m에서 최대 22m이고 평균 14m로 나타났다.

3.4. 회의장의 단위공간 분석

각 시설에서 구분하는 규모별로 회의장을 분류하여 단위면적, 수용인원, 천정고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으며, 회

<표 14> 사례별 회의장의 분할단위 및 면적

사례	규모별 회의장									결합 형태	분할 형태
	대	천정	인원	중	천정	인원	소	천정	인원		
K1	314㎡	4m	150	188㎡	4m	90	94㎡	4m	40	대+대 소+소	중+2
K2	658㎡	6m	800	284㎡	5.7m	200	189㎡	5.2m	100	-	대+4 중+2 소+2
K3	-	-	-	156㎡	5m	120	-	-	-	중+중	-
J1	136㎡	2.8m	117	88㎡	2.8m	63	56㎡	2.8m	45	-	대+2 중+2
J2	210㎡	3.9m	144	144㎡	3.9m	84	-	-	-	고정	고정
J3	420㎡	5.5m	176	135㎡	5.5m	98	75㎡	4.2m	36	중+중 소+소	-
J4	-	-	-	308㎡	4.3m	198	60㎡	3.5m	27	소+소	중+2
J5	283㎡	4.3m	210	175㎡	3m	120	83㎡	3m	54	중+중	소+2
평균	336㎡	4.4m	266	185㎡	4.3m	122	93㎡	3.8m	50		

* 대: 대회의실, 중: 중회의실, 소: 소회의실. ** 대+대는 같은 대회의실의 결합을 나타내며, 대+4는 대회의실을 4분할하여 사용가능하다는 의미

의실의 규모는 일정한 규모 기준이 없이 각 시설에서 대, 중, 소회의실로 나누어 회의주최자에게 임대하고 있었고, 평균 면적은 대회의실 336㎡, 중회의실 185㎡, 소

회의실 93㎡로 나타났으며, 규모가 증가할수록 약 두 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소회의실의 경우 K2와 J4 사례를 제외하고 대부분 100㎡ 전후의 면적 분포를 보이고 있어서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대회의실의 경우 100㎡대~600㎡대 규모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대회의실은 독립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사례도 있었지만, K3, J3, J5와 같이 중회의실이 상호 결합되어 대회의실을 구성하거나, K1의 사례처럼 대회의실이 상호 결합되어 통합회의실(628㎡)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천정고는 회의실의 규모에 따라 약간씩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3.8m~4.4m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수용인원은 좌석배치형태에 따라 연회식, 강의식, 리셉션식, 극장식이 있으며 전자에서 후자로 갈수록 수용인원은 늘어나게 된다. 본 조사에서는 제일 많이 쓰이는 강의식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1인당 소요면적은 대회의실 1.26㎡, 중회의실 1.52㎡, 소회의실 1.86㎡로서 평균 1.54㎡의 면적이 필요하고 소규모일수록 1인당 소요면적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결론

국내 전시컨벤션 사례와 일본의 사례를 대상으로 시설의 기능과 규모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간구성상의 특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주요 공간인 전시와 회의기능을 수반하는 집회영역은 시설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비례하여 면적이 상승하였으나, 공동영역의 경우 면적의 비율은 반비례하여 소규모 시설일수록 공용부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규모 시설에서도 이용자의 이동과 편의성을 위하여 공용부의 면적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대규모 전시장은 최소 2분할에서 최대 6분할까지 가능하며, 중규모의 경우 2분할, 소규모는 3~4분할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대규모 전시장의 분할 단위면적의 최소 평균은 3,950㎡이며, 중규모 전시장은 1,860㎡로 두 배 이상의 차이가 있었으나, 국내 전시장의 경우 평균적인 소규모 전시행사의 소요면적이 2,500㎡ 정도로 나타났음을 볼 때 계획 시 분할면적의 최소 단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인터뷰조사 시 시설 관계자들은 시설의 규모 확장 필요의 요인으로 가동률의 피크 및 대규모 행사의 유치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실제로 일부 시설들은 확장 이후에도 가동률이 늘지 않았으며 오히려 확장 전보다 줄어든 곳도 있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표 7>에서처럼 국내 전시행사의 72% 정도가 평균 면적 7,500㎡이하 중규모 시설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42%의 소규모 행사는 2,500㎡의 규모에서 개

최되고 있으나, 정작 15,000㎡이상의 면적이 소요되는 대규모 행사는 전체의 10%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모가 커진다고 하여서 반드시 가동률도 비례하여 상승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대규모 전시공간의 경우 분할임대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동시에 전체 면적이 임대되지 않을 경우 잉여 공간의 낭비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에 향후 증축을 고려하거나 조성될 국내 중·소도시의 전시컨벤션 시설은 공간의 규모면이나 이용도 측면에서 효율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시장과 회의장의 중간 성격인 다목적홀을 적극 설치하여 최대한의 공간 활용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현재 국내의 경우 대부분 회의면적보다 전시면적의 비율이 높은 상태이지만, 앞으로 광역도시에서의 전시장 공급은 포화상태로 될 것으로 여겨지며, 시설 공급의 후반기에 들어선 일본의 경우 90년대 이후에는 전시보다 회의기능이 강화된 전시컨벤션 시설이 많이 증가되고 있음을 볼 때, 향후 국내 중소도시에 조성될 전시컨벤션 시설은 대도시보다 입지 여건상 전시수요에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하여 회의 중심의 시설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공간계획적 측면에서 회의기능에 대한 충분한 면적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국내 사례의 경우 전시나 회의 등의 주요 기능들이 대부분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증축된 전시컨벤션 시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지만, 기존 시설에서 보완 받는 일부 기능은 검토에서 제외되어있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1. 한국관광공사, 2010 MICE 산업통계 조사연구, 2011
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컨벤션 지원정책 개선방안, 2011
3. 임재일, 우리나라 호텔컨벤션산업 육성에 관한 研究,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4.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컨벤시아 2단계건립연구, 2011
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컨벤션지원정책 개선방안, 2011
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컨벤션센터 건립방안, 1994
7.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제2컨벤션센터 건립사업 예비검토 연구, 2010
8.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전시산업 표준화 방안 연구 및 전시산업 표준용어집, 2010
9. 서승진 외, 컨벤션산업론, 세림출판사, 2007
10. 광주광역시, 광주 제2컨벤션센터건립사업연구, 2010
11.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의 컨벤션투로의 기능과 역할, 2006
12. 제해성, 컨벤션센터와 무역전시관 건축, 초판, 구미서관, 2001
13. Castex, J., Management of PCO Office and a Congress, 2nd IAPCO, AACVB Joint Seminar on Professional Congress Organization, Thailand, 2001
14. 熊本市, 熊本市コンベンションシティ基本構想, 2011
15. 金錦香, コンベンション施設の運営と課題, 都市文化研究 Vol.8, 2006
16. 日本観光廳、國際會議誘致ガイドブック, 2009

[논문접수 : 2013. 01. 31]

[1차 심사 : 2013. 02. 21]

[게재확정 : 2013. 03. 08]